新데탕트의 걸림돌 - 페르시아만 분쟁

〈完〉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세계정세의 변화

◇미국의 '영구주둔기도'가 현실화 될 경우 소련은 미국과의 공동보조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글싣는 순서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배경과 그 의미
2. 페르시아만 분쟁을 전후한 아랍권 내부의 동향
3. 이라크의 분쟁유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도
4. 미소관계의 변화와 UN의 역할
5.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세계정세의 변화

'돈만 많고 힘없는 중동의 서자'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침공으로 발생한 이번 페르시아만 분쟁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타 부족을 점령하던 고대 아랍민족의 싸움과 그 본질은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세계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서구에게 있어 사활적 자원인 석유를 손에 쥐고 있으며, 여지껏 중동분쟁이 강대국의 개입과 그로 인한 국제분쟁으로의 확대를 초래하여 왔다는 국제정치적, 경제적 파장때문이다.

특히 동구의 민주화, 소련의 개혁과 개방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데탕트 조류 속에서 대다수 국제정세 분석가들은 힘의 공백으로 인한 국지전의 발생을 염려해 왔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이에 대해 명백한 입증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 의의를 갖고 있다. 냉전이후의 새로운 질서 확립에 있어 미, 소 모두 '평화의 사도'라는 인식을 심으려 하기 때문에 군사개입 등 과거와 같은 무력사용은 되도록 피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 대결이라는 미명하에 서방세계의 맹주노릇을 하던 미국은 자유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독일의 기타 서방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자국이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앞둔 과도기에서 힘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였고 이라크는 그 균열을 교묘히 이용하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맞아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와 해상무역 시위, 지상군의 대거 파견을 통한 군사적 압력을 병행하는 등 신속하고도 결단력있는 대응태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헬싱키 미소정상회담을 통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에 공동보조를 맞추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서방 각국에게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에 동참하도록 촉구하였고, UN에서도 포괄적 제재조치에 대해 동의를 얻어내고 있다.

한편 페르시아만 사태에 관한 지금까지의 소련의 입장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비난과 대이라크 경제제재 동참 및 이라크군의 즉각적인 철수요구, 쿠웨이트 합병의 무효선언 등에서 서방과 공동보조를 취해오면서 군사적 조치는 성급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정치, 전략적 측면에서 이라크와 완전히 등을 돌릴 경우 중동에서 영향력 기반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9일자 '프라우다지'의 톱기사가 헬싱키 정상회담이 아닌 소련국내 경제개혁 문제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소련의 당면 목표는 내부경제 개혁조치이고, 이의 추진을 위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공동보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향후 페르시아만 사태의 해결과 세계정세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어쨌든 페르시아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정세는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아랍권내에서 먼저 가시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반공, 반소국가인 사우디는 지난 38년 단절되었던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이라크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의 굳건한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관계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이라크와 소련에서 오는 위협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시리아간의 접근도 커다란 변화이다. 아랍국가중 가장 급진파인 시리아는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방문과 때맞춰 다국적군에 병력을 증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중동의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친이라크파와 친사우디파로 나뉘어지는 아랍권의 재분할이다. 이러한 분열은 쿠웨이트침공후 열린 카이로 아랍정상회담을 계기로 심화되어 오다가 지난 11일 카이로에서 이라크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사우디파 12개 아랍연맹회원국이 긴급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연맹 본부를 튀니스에서 카이로로 다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극에 달하였다.

아랍권의 분열은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아랍민족주의의 대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후세인은 미국이 사우디에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짓밟혀진 이슬람 성지를 해방시키자며 아랍제국에 성전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란이 대미 성전 선언을 하였지만 그 목적은 국내 급진파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서방세력이 페르시아만에서 더이상 세력확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로 분석될 뿐이다.

이와함께 향후 아랍세계의 변화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동구의 민주화와 개혁에 이어 중동에서도 민주화의 열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는 한편으론 혁신공화제 대 수구왕정제의 대결이란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일부 아랍 지식인들은 비록 후세인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패하고 독재적인 왕정을 축출했다는 점만은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더이상 독재나 부의 편중에는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민간정부가 들어서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쿠웨이트에 진정한 민주정권이 들어선다면 아직도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UAE등에서도 민주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아랍의 움직임은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테두리안에서 가능한 것이며, 중동문제를 둘러싼 세계정세의 변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웨이트사태가 장기화되고, 사우디주둔 미군의 증강이 계속되면서 미군의 '중동영구주둔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라크의 패권주의에 의한 불안요인, 군사적 균형의 붕괴, 혁신공화 대 수구왕정의 갈등노출 등과 함께, 신데탕트 이후 나토의 군사적 지위상실에 따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재고라는 미국의 이익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 동아시아, 인도양 등에서와는 달리 중동지역에는 대규모 미군기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과거 중동방위조약기구인 바그다드조약기구(CENTO)구성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미국에게는 이번 분쟁이 적절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지난 4일 하원외교위청문회에서 "중동의 전반적인 안보구조에 대한 분명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전제, 이 지역에 나토와 같은 군사기구의 창설을 구상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영구주둔기도가 현실로 가시화된다면 기독교 제국주의에 대한 원초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아랍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이 지역이 제2의 베트남화가 될 우려가 있으며, 미국의 중동지역 패권장악을 원치 않는 소련으로서도 공동보조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신데탕트조류 속에서 경제적 자국중심주의를 표방함으로써 큰 이익을 본 일본, 독일 등의 서방국가들은 미국의 세계적 패권국가로의 재등장과 그로 인한 세계정세의 신냉전화를 원치 않고 있음은 자명하다.

한편 페르시아만사태의 해결후 아랍질서가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힘의 공백상태를 조정할 지역안보장치는 어떠한 형태로든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사태로 미국은 의회가 보류하고 있던 F15전투기 10대의 판매를 허용한 외에도 추가 군비증강을 사우디에 지원한 바 있으며, 친미 이집트에 대해서도 역시 10억달러 상당의 전투기, 대전차무기를 서둘러 지원하였다. 따라서 사태 종결후 사우디, 이집트를 비롯한 또 다른 군사강국이 출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결국, 중동의 곪아터진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치로써 중동평화조약의 체결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조약에는 PLO를 포함하는 동부아랍권과 이란, 터키, 이스라엘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조약은 모든 점령군의 철수 및 국경보장을 포함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고 이스라엘은 점령지 아랍영토에서, 그리고 시리아는 레바논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다. 조약체결의 주체는 물론 아랍권의 모든 국가가 되겠지만, 논의의 장은 UN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8일부터 개최된 제45차 UN총회는 국제여론의 수렴과 국제분쟁조정 그리고 외교무대로서의 유엔의 고유기능과 위상을 회복하게 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페르시아만 분쟁이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될 경우 국제정치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먼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지전을 포함한 세계분쟁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미·소양 강대국은 80년대 이후 구축하여 온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일본, 서독등 경제강국의 입지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란-이라크 전쟁시 막대한 지원을 했던 소련이 이번 사태에서는 이라크에 냉담했다는 사실은 아랍지역을 포함한 제3세계권으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미·소 어느 한쪽에 스스로 종속되어 버리는 자가당착적 외교행태가 무용함을 인식케 하고 있다.

결국 이번 페르시아만 분쟁은 아직도 국제관계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외교행태의 결정적 요인은 자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원론적 명제를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다만 작금의 국제정세가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페르시아만 사태이후 세계정세에 자국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상 균
〈연대·동서문제연구소〉

국익에 좌우되는 국제정세 자국중심주의 확산시켜

쿠웨이트 왕정 붕괴時 아랍권의 민주개혁 가능성 높아

◇…용성총련의 연대사업 현황및 전망

지역 연대의 구심

상반기 민주화운동으로 대중적 기반마련

지역현실에 맞는 실천대안 제시해야

I

90년대 지역운동은 기간에 성장 발전한 기층대중 조직을 중심으로 민중운동중심의 민주연합조직을 건설하고 광범위한 군중을 의식적으로 투쟁에 조직동원해야 한다. 이에 성남지역운동의 개괄적 발전 과정과 향후 성남지역운동의 전망을 살피고자 한다.

II

60년대 청량리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던 빈민촌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작업이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신도시 건설지라는 명목으로 성남(당시 광주군)으로의 이주를 강요하였다.

당시 성남은 산을 깎아놓기만 한 언덕의 연속일 뿐이었고 먹을 것과 잠자리의 해결책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정부의 빈민 허치장이었다. 이로부터 성남운동의 발단은 시작되었다 할수있고 이 과정은 3기로 나눌수 있다.

1기는 이주에서부터 광주 대단지 항쟁-이는 성남지역 청년단체인 '티사랑 청년회'의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규명으로부터 새롭게 규정됨- 까지라 할수 있다. 제2기로는 공단의 건설과 함께 교회중심의 노동야학의 출현과 현장에 움터오르기 시작하는 노동운동 태동기라 할수 있으며 제3기는 86~87년을 거치며 대대적으로 진출해 나서는 노동운동과 성남으로 자기운동의 근거지를 명확히한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 연합의 본활동 시작이라 할수 있다. 특히 87년을 거치면서 성남지역운동은 비약적 발전을 했으며 그 세력관계 또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으로 그 중심을 명확히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89년 한반도를 휩쓴 공안 광풍은 성남에도 불어 왔으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탄압앞에 성남민협 준비위도 제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전교조 공대위로 전화했으며 이 전교조 공대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단체와 민주인사가 참여하는성남 민주인사 단체장 대표자 연석회의로 전화, 현재 성남지역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III

89년 5, 6월 성남 노동운동과 7·8월 학생운동에 몰아쳤던 대대적인 탄압에 일시 주춤거리던 성남지역 운동은 다시 회복되어 나오는 학생운동과 청년단체운동을 중심으로 90년을 접어들며 회복되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상반기 지역연대 투쟁은 5·1절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청년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대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남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속에 훌륭히 치뤄졌으며 이 여세는 지속되어 5·9 국민대회때에는 4천을 헤아리는 군중이 운집 대규모 집회를 시내중심가를 장악하며 2시간여동안 시위를 갖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남지역의 의식수준과 세력중심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기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온 성남시민의 투쟁의지는 일상적으로 표출되어 나오며 계급적으로는 노동자, 빈민중심의 운동에 청년학생운동이 그 중심에 굳건히 서있는 세력관계를 볼 수 있다.

그외에 종교운동이 존재하나 이들의 구성또한 대부분이 노동, 빈민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다시 연대운동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첫째 조직적으로는 제운동 단체간의 결속도의 미흡, 중심축의 미형성, 기층대중조직에 나타나는 자생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였으나 와해된 연대조직의 재건설이라는 측면과 상반기 조직운동의 구심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심이 되었다는데서 큰 성과를 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당면한 정치정세를 뚜렷이 해명하여 대중운동 정책을 생산해 내어 전망있는 투쟁을 벌여 나가지 못한점이다. 또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투쟁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지 못한 점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남의 주요운동 세력인 청년학생운동은 이러한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대중적으로 구현해 내지 못한 오류를 반성해야 한다.

노동·청년·학생운동의 지위를 옳게 보장하고 그역할을 극대화해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대중단체들을 묶어세워야 한다.

또한 연석회의의 집행체계를 명확히 밝히고 각부문단체의 책임있는 참가를 보장해야 하며 정책협의구조를 신설운영 조직강화사업과 투쟁사업 사이의 통일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

한편 통일투쟁의 일상적 전개가 요구된다. 특히 용산 미8군 골프장 성남이전 반대투쟁을 성남의 고질병인 주택문제 해결요구와 함께 벌여내야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설된 범민족대회 추진 성남지역본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전망을 뚜렷이 밝혀 시민운동차원의 통일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하반기 전과정을 전개해가는 과정은 그 중심을 용성총련으로 할 수 밖에 없을듯 하다. 따라서 청년학생운동은 지역연대조직강화사업에 명확한 자기입장을 가지고 나설것이 요구되며 조직적·정치적으로 성남연석회의의 구심단체역할을 해내야 할것이다.

하 대 치
〈용성총련·연대사업국장〉

"창업 50주년 기념축제 중 신입사원들이 함께한 소고춤 한마당"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기업, 쌍용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집부문	모 집 해 당 학 과	인 원	
관리사무직	상경계(경영, 경제, 무역, 회계) 법정계(법학, 행정) 기타 인문사회계(사회, 심리, 교육) 영어, 일본어	200명	550명
기 술 직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금속공학, 무기재료공학, 자원공학, 산업공학, 전자계산학	300명	
영 업 직	인문·이공계 전학과	50명	

2. 응시자격

가. 1962년 1월1일(석사 : 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
나. 4년제 정규대학 모집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 1991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역 복무중인 자는 1990년 12월말 이전 전역예정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면 접(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입사원서(당사 소정양식) ·····1부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1990년10월15일(월)~10월20일(토)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지역별	교 부 및 접 수 처	전화번호
서 울	서울 중구 저동2가 24-1 쌍용빌딩 18층	266-5151/9
부 산	부산 중구 동광동2가 3-2 쌍용투자증권 부산지점(신탁은행건물)	243-0707
대 구	대구 중구 덕산동 96 쌍용투자증권 대구지점(덕산빌딩)	423-7700
광 주	광주 동구 금남로2가 30 쌍용투자증권 광주지점(쌍용빌딩)	232-0707
대 전	대전 중구 선화동 5-2 쌍용투자증권 대전지점(소청빌딩)	255-9131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필기시험

가. 과목 : 영어, 상식, 적성검사(단, 적성검사는 영업·전산직에 한함)
나. 일시 : 1990년 11월4일(일) 09 : 00
다. 장소 : 국민대학교(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9. 기 타

가. 우송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나. 국가유공자 자녀등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가점혜택 부여 (해당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할 것.
○전화문의 : 266-5151~9(교)508, 269 쌍용인력관리위원회

쌍용양회·(주)쌍용·쌍용정유·쌍용건설·쌍용투자증권·쌍용자동차·쌍용중공업·쌍용제지·고려화재해상보험·쌍용해운·쌍용컴퓨터·쌍용엔지니어링·남광토건·쌍용정공·쌍용자원개발

쌍용인력관리위원회